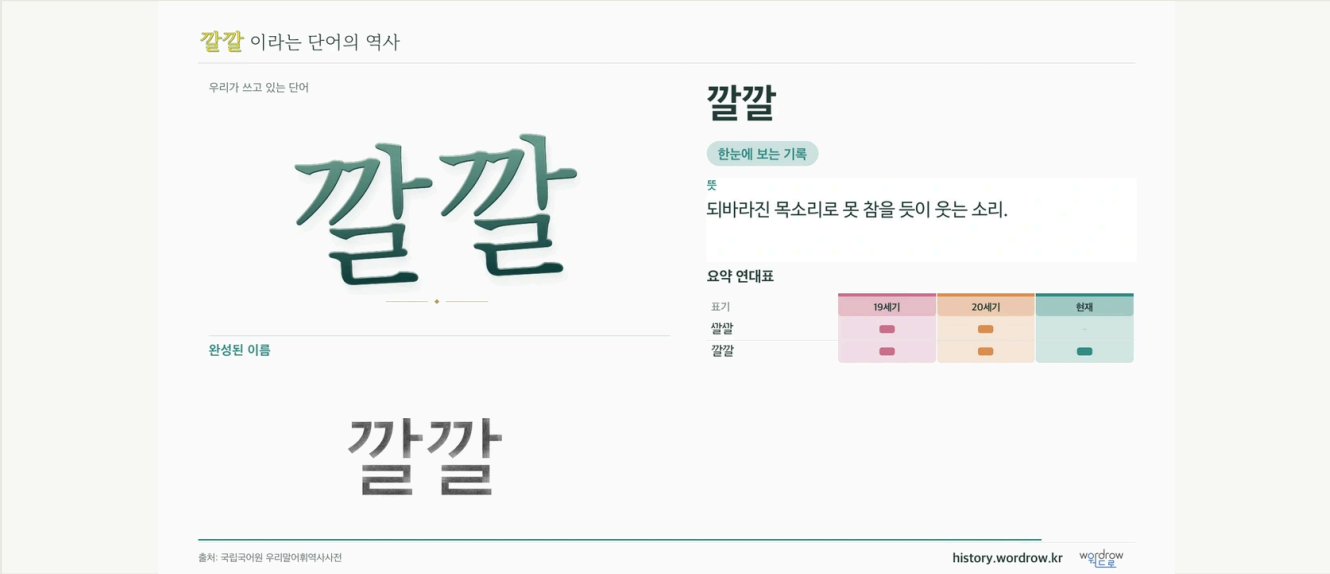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 깔깔

##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되바라진 목소리로 못 참을 듯이 웃는 소리.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8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깔깔'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되바라진 목소리로 못 참을 듯이 웃는 소리.

# 깔깔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깔깔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 표기 · 근거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20세기 |
|---|---|---|---|---|---|---|
| **쌀쌀**<br>사전 표기 요약 | — | — | — | — | ●→ | ●→ |
| **깔깔**<br>사전 표기 요약 | — | — | —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쌀쌀
  19세기20세기
- 깔깔
  19세기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쌀쌀, 깔깔

# 깔깔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변화

‘깔깔’의 옛말인 ‘ᄭᅡᆯᄭᅡᆯ’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근대 국어 시기 이후 ‘ㅺ’을 ‘ㄲ’으로 적게 되는 경향에 따라 19세기부터 ‘깔깔’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깔깔

전체 용례 8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 19세기 ᄭᅡᆯᄭᅡᆯ, 깔깔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ᄭᅡᆯᄭᅡᆯ, 깔깔

출처 1880 한불자전 134

용례 01

문헌 용례

**ᄭᅡᆯᄭᅡᆯ 웃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5 유옥역전 18ㄱ

용례 02

문헌 용례

**슈닭기 머리을 들고 ᄭᅡᆯᄭᅡᆯ 우스며 ᄒᆞᄂᆞᆫ 말리.**

현대어 풀이

수탉이 머리를 들고 깔깔 웃으며 하는 말이.

출처 1896 국한회어 곤:15

용례 03

문헌 용례

깔깔 웃다 [剛澁].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세기 ᄊᆞᆯᄊᆞᆯ, 깔깔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ᄊᆞᆯᄊᆞᆯ, 깔깔

출처 1908 철세계 73

용례 04

문헌 용례

좌션과 상의원이 모도 ᄊᆞᆯᄊᆞᆯ 웃고 ᄂᆡ려오니.

현대어 풀이

좌선과 상의원이 모두 깔깔 웃고 내려오니.

출처 1911 목단화 66

용례 05

문헌 용례

ᄊᆞᆯᄊᆞᆯ 우스면 들어와 졍슉을 보고 ᄉᆞ과를 ᄒᆞᆫ다.

현대어 풀이

깔깔 웃으면서 들어와 정숙을 보고 사과를 한다.

출처 1920 동아일보 7월 10일 4면

용례 06

문헌 용례

그 사람은 별안간 ᄊᆞᆯᄊᆞᆯ 우스면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0 개벽 1호 22면

용례 07

문헌 용례

나는 압흐로 압흐로 굴러 나아가지요, 그리고 쌀쌀 웃으며 어머니 무릅에 부듸쳐 부서지지요.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7 조선일보 2월14일 석간 5면

용례 08

문헌 용례

그러다가 두 시간이 되여서 밥을 갓다 주면 조아서 혼자 깔깔 웃다가도 벼란간 소리소리 질르면서 밥그릇을 창문 박게 동댕이치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 깔깔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깔깔의 뜻과 역사

#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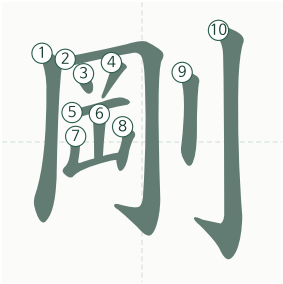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 剛

뜻·음 굳셀 강

총 10획 · 부수 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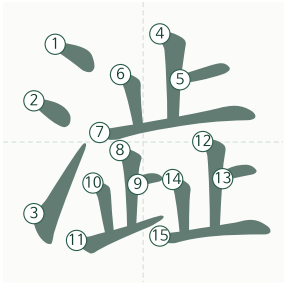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剛/

## 澁

뜻·음 떫을 삽

총 15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澁/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